

21세기의 유기농업을 위한 제언

정진석

흙살리기 참여연대 대표

1. 정부가 할 일

- 화학비료, 농약 사용량 감축의 지속적 추진
- 농토배양(흙살리기)을 위한 특별법 재정(예: 지력 증진법)
- 유기농업 경영으로 전환농가에 대한 특별지원(예: 직불제 장려금 제도, 세제지원 등)
- 유기농업 진흥을 위한 국가,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(예: 유기농업센터 설치)
- 유기농산물 소비 촉진(예: 학교급식법, 병원 등 단체급식법 제정 등)
- 국민 식생활개선운동 지원
- 유기농산물 시장의 확대

2. 생산자가 할 일

- 「민족의 생명먹거리」를 책임지고있고 생명일꾼으로서의 사명감으로 정신무장
- 유기농업 생산기술의 지속적 향상
- 무농약, 무화학비료 재배로 흙살리기 기술체계 확립 및 실천확대
- 유기농업의 적정경영규모 검토
- 바른 농사를 짓고 정직한 농민의 농심회복

3. 소비자가 할 일

- 유기농산물 소비 확대에 적극 참여
- 도·농 일체 직거래운동 확대
- 소비자 의식교육 강화

4. NGO가 할 일

- 국민식생활개선운동 적극 전개(예 : 과거 분식장려운동 → 유기농산물 장려운동)
- 농약, 화학비료의 과다사용 농산물이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만성적 병해의 의학적 역학적 해명 추진
- 흙살리기 시민운동의 지속적 전개로 유기농업 생산기반 구축
(예 : 시민의식교육의 강화, 제도권 학교교육에서 정규과목 채택추진 등)